



경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cd.org)  
사무실: O2)3447-O750~1 팩스: O2)3447-O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이냐시오)  
1 보좌신부 : 김경영(영주바오로)  
2 보좌신부 : 김세영(파비아노)  
전 교 수 녀 : 김영희(비앙카)  
박선옥(에드워드)  
사 목 회 장 : 장병철(올리아노)  
연 령 회 장 : ☎ 010-5411-5837

주일미사	토요일 15시(초등부), 토요 저녁미사 : 19시 / 주일 : 6시, 9시, 11시(교중미사), 15시(중고등부), 17시, 19시		
평일미사	월 ~ 토 : 6시 / 화 ~ 금 : 10시 / 화 ~ 금 : 19시	고해성사	주 일 미사 전 30분
봉 성 체	매월 둘째 목요일 10시 미사 후		평 일 미사 전 15분
관면흔배	매월 둘째 토요일 17시	유아세례	출수 달 첫째 토요일 17시

소 식

금주의 성경 암송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로마 12,14)

- **병자인수 축복식: 6월 25일(주일)11시 교중미사 후**
- **유아세례: 7월 1일(토) 오후 5시**  
\* 신청마감: 6월 25일(주일)까지 사무실 접수
- **사제성화의 날**  
\* 예수 성심 대축일(6월 23일 금요일)은 사제 성화의 날로 이 날은 모든 교회가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사제들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6월 23일(금)은 사제성화의 날 행사관계로 본당 오전 10시 미사는 없습니다.)
- **평일 저녁 미사 장소 변경**  
\* 본당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7월 4일(화) 저녁 미사부터 평일 저녁미사는 1층 프란치스코 홀에서 봉헌됩니다.
- **예비신자 모집 (모집마감: 6월 27일(화)까지)**

평일반(화요일)	오후 8시, 1층 지혜방
주일반(일요일)	오전 9시 20분, 1층 지혜방
- **어르신 방문교리 신청 및 봉사자 모집**  
\*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환자분들 대상으로 방문 교리를 접수받습니다.  
\* 문의: 김 요안나 (010-3724-1607)
- **성모 마리아 발현 100주년 기념 영화 상영**  
\* 파티마 성모 마리아 발현 100주년을 맞이하여 본당에서 '파티마의 기적' 영화를 상영합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레지오 단원 필히 참석)  
\* 일시: 6월 29일(목) 오후 8시, 2층 대성전
- **영상 미디어팀 봉사자 모집**  
\* 본당 행사와 소개를 위한 영상 촬영 및 편집을 도와주실 봉사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송 라파엘 (010-3161-4511)

- **필리핀 말로로스시 청년 해외 봉사 후원 물품 접수**  
\* 주임 신부님과 함께하는 청년 해외 봉사에서 현지 어린이들에게 나눠 줄 물품을 접수받습니다.  
\* 접수마감: 7월 9일(주일)까지  
\* 물품종류: 아이들 헌 옷 200벌(티, 반바지, 속옷 등), 학용품 200명분(연필, 노트, 필기구 등)
- **군 복무자 선물(책) 보내기**  
\* 새로 군입대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사무실에 비치한 주소록에 장병 주소, 제대 예정일, 부모님 연락처 등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군중후원 회장 윤 소피아(010-9968-5634)
- **여성 제 382차 꾸르실로 교육 및 환영식**  
\* 참석자: 김미희 바울라 (사회 사목 분과)  
\* 교육일시: 6월 22일(목)~6월 25일(주일)  
\* 환영식: 6월 25일(주일) 오후 7시, 1층 프란치스코홀
- **청담동 성당 청년 여름 캠프 (충남 태안)**  
\*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요한 17,21)'말씀을 주제로 떠납니다.  
\* 일시: 7월 7일(금)~7월 9일(주일), 2박 3일  
\* 문의: 이 요안나 (010-9678-7876)
- **로사리오 카페 3기 봉사자 모집 (6월 30일까지)**  
\* 청담동성당에 교적 있는 본당 교우에 한하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연령제한: 50세(68년생)이하  
\* 모집: 주중 1회, 주말 월 2~3회 봉사 가능자, 주말 봉사  
\* 문의: 이 벨라멧다 (010-5410-3585)
- **레지오 단원 모집**  
\* 본당 레지오 마리아 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상: 청담동교우 남성신자, 직장 여성신자, 청년, 청소년(초·중·고)  
\* 문의: 권 마르시알 (010-8786-1981)
- **6월 18일(오늘): 본당시설 보수 헌금 2차(본당)**
- **6월 25일(주일):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2차 (교구)**

모 임

- \* 6월 18일(오늘): 상임위원회
- \* 6월 19일(월): 성령 기도회(강사:박덕유 알로이시오)
- \* 6월 20일(화): 전례분과
- \* 6월 23일(금): 해설단
- \* 6월 24일(토): 태교모임/ 성찬봉사회

성가번호 입 당: 163      예물준비: 216, 217      성 체: 502, 503, 165      파 건: 201

화 답 송

예 루 살 렘 아 주 님 을 찬 미 하 여 라

**노란 장미의 부업**  
-청담수필 봄 문화기행을 마치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창 너머에서 사랑 깊은 풍경이 들어와 앉는다. 사진을 찍는 총무와 찍히는 두 선배의 고요한 듯 솟아오르는 정 깊은 표정에 나의 시선이 고정되었다. 깊숙한 곳에서 품어져 나오는 의미를 글로써 표현할 수 있다는 소중함과 고마움을 하느님께 찬양 올렸다. 이 장면을 나의 뇌 지도에 그려 넣는 것만으로도 오늘의 수필 기행은 성공이었다.

오전에 '예술이 자유가 될 때'라는 이집트의 초현실주의의 미술을 감상하고, 인간의 본능적이고 솔직한 모습을 머릿속에 찍었으나,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본능이기 이전에 생명을 이어주는 직접적인 원초적 본능이기에 더욱 절실하고 즐거운 맛이였다. 입맛에 감기는 낭만적인 이탈리아 요리에 감탄하며 감상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주신 것에 감사하였다. 식사 뒤끝에 보여진 전편의 장면이, '애피타이저'의 그림 감상 보다 더 비할 데 없이 향기롭고 값진 '디저트'였다. 레스토랑까지의 걸음걸음이 문학작품이 되고 그림이 되었다. 어젯밤 비에 씻긴 함초롬한 수목화와 맑은 거리는 행인들의 표정을 싱그러운 훈풍으로 어루만졌다. 그 자리에 함께 젖은 우리는 글을 쓰는 이들이기에 더욱 감동이 충만하였다. 24구공 연탄재에 꽃힌 싱싱한 노란 장미 한 송이 곁에 ['뜨거울 때 꽃이 핀다.'-Yeol]이라 덧붙여진 문구에 신선한 충격과 상념이 깊어졌다. 결국에는 글감이 되어 숙제로 안고 왔다. 서울이 지녀온 시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울 역사박물관의 관람을 마치고, 석양빛을 바로 맞으면서 담소하는 우리의 얼굴은 노란 장미빛이었다.

크게 열고 웃고, 뜨겁게 반응하는 우리는 노란 장미였다. 따뜻하게 나누고 받아들이는 노란 장미이다. 노란 색은 문히기도 쉽고 돋보이기도 좋은 빛깔이다. 감출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 빛깔이다. 우주에서 내려다 본 지구상에는 노란 빛깔의 꽃무리가 가장 넓게 펼쳐져 있다고 한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따사로운 기운을 많이 품고 있으며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표징이 아닐까. 우리는 노란 장미의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다.

연탄재에 꽃힌 노란 장미가 어른거린다. 따뜻할 때 꽃이 피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뜨거울 때 핀다니 난감하다. 잊어버리자.

꽃꽂이할 때 꽃망울을 좀 더 피울라치면 입김을 모아주었다. 꽃이 꽃을 싱싱하게 오래 지속시키려면 꺾인 자리를 촛불로 태우기도 했다.

하늘 공원의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이 비교되어 떠오른다. 열기를 빼앗긴 연탄재는 다른 유기 쓰레기와 버무려져서 높이 쌓이고 쌓여 쓰레기 산이라고 이름 하였다. 그 곳에서 생명을 품고 기르고 꽃 피우고 열매 맺으며 지금은 휴식을 주는 하늘 공원으로 불린다.

인간에게 버림받은 것조차도 인간을 사랑하여 되돌려주는 자연의 신비가 은혜롭다.

만물의 영장을 위해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모두인 인간은 반성하고 성찰하고 각오해야 될 것 같다. 지구가 쓰레기 뭍으로 덮여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모든 것을 절약하면 되지 않을까.

노란 장미를 보고 있는 우리는 연탄재와 씨름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쓰고 있는 주부이다. 연탄의 열기를 빼앗은 우리는 무슨 꽃을 피웠을까. 날마다 부엌에서 식재료를 해체하여 양질의 것과 버려야할 것을 갈라놓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생산해놓은 쓰레기를 버리면 하루가 끝난다. 그리고 노란 장미의 얼굴로 가족을 반기며 맞아준다.

노란 장미는 어머니의 꽃이라고 생각한다. 포근하게 강하게 안아주는 어머니이다. 오늘 하루 수필기행에 다녀와서도 끝끝내 부엌의 일을 끌어들이고 말았다.

< 청담 수필반 12구역5반 최옥연 제노베파 >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헌 예물		교무금 납부 현황		감사 현금 (6/7~ 6/13)	
삼위일체 대축일	13,451,850	총 세대수	3,835	이 글라라	50,000
교무금	16,460,000	총 납부 세대	1,185	양 율리아나	100,000
		지난주 납부 세대	27	박 마리아	50,000
성소 후원금 ( 9 건)	320,000	총 납부율(%)	30.9	합 계: 200,000원	